

함평우시장 114년만에 학교면 이전 재개장

전자경매 시스템 등 최신시설 갖추고 동물병원도 배치 차량 200대 주차공간...하루 368마리 경매 규모 신축

1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함평축협 가축시장(함평우시장)이 최신시설을 갖추고 전면 재개장했다. 특히 가축시장 내에 동물병원을 배치하는 등 선진 축산시장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전국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함평군과 함평축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교면에서 안병호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이윤형 함평군의회위원장, 도·군 의원, 사회단체장, 축산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축협 가축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지난 1903년 함평5일장과 함께 문을 연 함평축협 가축시장은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인 우시장으로, '함평 큰소장이 전남 소값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던 곳이다.

하지만 8168㎡ 부지의 재래식 시설로 낙후된 시설과 상하차 등이 불편한 주변 여건 때문에 이용객의 불만이 높고, 양축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학교면으로 자리를 옮기고 토지매입비 7억9900만원, 건축비 15억원을 들여 1만7648㎡ 부지에 하루 368마리를 전자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새로 조성했다.

특히 가축시장 내에 동물병원을 배치하고, 축종별로 축산단체 사무실을 설치해 축산인들이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또 배합사료 하차장과 200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소득시설을 강화해 거점소득시설로 활용한다.

임희구 함평축협조합장은 "함평축협은



최근 함평군 학교면으로 이전한 함평축협 가축시장(함평우시장) 개장식에서 안병호 함평군수와 임희구 함평축협조합장, 이개호 국회의원, 이윤형 함평군의회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그동안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며 "1996년도 한우생축사업장준공, 1998년도 섬유질사료장 준공, 2010년도 유효미생물 발효사료 공장과 함평전지한우프라자 완공에 이어 가축시장 신축으로 양축가 조합원 및 소비자를 위한 원-스톱 축산

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병호 군수는 "새롭게 문을 연 가축시장을 중심으로 함평축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함평전지한우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축산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남악복합주민센터 문 열었다

4층 규모...행정·보건·교육시설·문화 공연장 등 갖춰

무안군이 남악복합주민센터 개청식을 갖고 남악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무안군은 "지난 13일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준수 무안부군수와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군 의원, 무안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군민 등이 참석했다.

남악복합주민센터는 남악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교육문

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박준수 무안부군수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악복합주민센터가 남악주민의 행정·문화·복지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무안군의원은 "남악 주민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탄생한 만큼 자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악복합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



남악복합주민센터 개청식에서 박준영 국회의원,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준수 무안부군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사업소와 남악출장소, 장난감도서관 등 행정시설이, 2층에는 건강

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시설이, 3층과 4층에는 각각 교육문화시설과 공연장 등이 들어섰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신안군 흑산 해역 해삼 47만 마리 방류 전복·갯지렁이 등 129만미 방류 계획

신안군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흑산면 예리 등 21개 지선에 전복, 해삼, 바닷갯지렁이 등 129만미를 방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흑산면 예리1구지선 등 10개지선 어업인들과 함께 해삼 47

만4000마리를 방류했으며, 17일에는 전복, 8월중에는 갯벌 마을어장내에 바닷갯지렁이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류한 해삼은 체중 1~7g으로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양성돼 해양수산과학원의 질병 검사 등 사업지침에 따라 적합여부가 확인된 종묘이다.

이번에 방류할 흑산, 하의해역은 자연산 종묘가 자생하는 지역으로 해조류가 많이 번식하고 있고, 연중 평균수온이 24℃ 이하로 해삼 성장의 최적지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재포획률, 서식환경 적응도, 현지 어업인 소득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춘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복, 해삼, 꽃게 등 총 39종, 3479만3000미를 방류했고, 지속적인 방류사업과 함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어기와 포획금지 제한 준수 등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tee@

법성포 단오제 '난장트기' 공개행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광의 법성포 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난장트기' 공개행사가 오는 30일 법성포 숲쟁이 꽃동산에서 열린다. '난장트기'는 법성포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예전에는 단오제 후원 조직의 하나인 백목전계라는 보부상 조직을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 오색천을 걸어 뒀는데, 현재는 지역사회단체의 기발을 설치해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될 난장트기는 난장기 설치, 기념식, 고사, 풍물놀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법성포 진내리에서 '천년의 기다림'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7 법성포단오제는 500여년을 이어오는 전통행사다. 영광군은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당산제, 산신제 등 전통제전의 식을 중심으로 민속씨름, 투호, 윷놀이 등 민속경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예술의전당 20일 '남만콘서트 7080' 공연

영광군은 "남만콘서트 7080"이 오는 20일 오후 7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사단법인 문화나눔 실천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봄꽃 시즌을 맞아 7080 음악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낭만을 즐겨보자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미가 특독 튀는 입담으로 진행하며, '여자야', '갈사람'의 유현상, '기차와 소나무'의 이규석, '가슴앓이'의 양하영, '국안인 안소리', '그만둬시다'의 박신희, '우리사랑 처음처럼'의 김은희 등이 무대를 맡길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남만콘서트 7080 향연에 음악을 가족·연인 등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일분도 아깝다'의 백장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금강물산 노인 일자리 업무협약

(사)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회장 김갑구)와 금강물산(대표 조성균)은 최근 업무협약식을 갖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과 참여자 확대 등 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는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인 장성,해남 등에 꽃게, 낙지탕 통발 여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 20억원의 꽃게통발 전문생산업체로 자리 잡았다.

지역민에게 일자리 제공 등은 물론 사회 환원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역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성균 금강물산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사업에 대한 지역 내 호응이 높아 전남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키펜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